

제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3권 21편 예정 3 · 반론에 답함

제3권 제23장 1-14절 「이 교리를 항상 공격해온 거짓된 비방들에 대한 반박」

?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신다면, 그건 불공평하고 사람 책임도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흐름 한눈에

칼빈은 먼저 선택은 받아들이면서 유기(버려 두심)는 부인하는 입장을 다룹니다. 선택은 '구별'이므로 버려 두심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출발점입니다 (1절). 이어 다섯 가지 반론에 차례로 답합니다. ① 하나님이 폭군이 된다(2-5절), ② 사람의 책임이 없어진다(6-9절), ③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신다(10-11절), ④ 거룩하게 살 열심이 사라진다(12절), ⑤ 권면과 설교가 쓸모없어진다(13-14절). 칼빈의 답은 늘 두 기둥 위에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의의 기준이라는 것, 그리고 정죄의 원인은 감춰진 작정이 아니라 사람 자신의 부패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 예정은 지혜롭게 전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고 맺습니다.

절별 정리

유기는 선택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하나님께서 그의 뜻으로 행하심. 1-3

1. 선택은 인정하나 유기는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정죄받도록 정해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부인합니다. 칼빈은 이것이 앞뒤가 맞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나치신 사람들은 자녀에게 주시는 기업(상속 재산)에서 빠지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반대자들은 로마서 9:22의 '오래 참으심'을 회개를 기다리시는 것으로 읽습니다. 또 '진노의 그릇은 준비되었다', '공홀의 그릇은 예비하셨다'는 표현 차이를 근거로, 멸망의 원인은 사람 자신에게 있다고 품니다. 칼빈은 바울이 표현을 부드럽게 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로 앞 문맥(바로를 세우심, 완악하게 하심)을 보면 완악해짐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라고 답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늑대를 양으로 바꾸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뿐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입니다.

1. 선택은 구별이라 유기 없이 성립 안 됨
2. 지나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뻐하심뿐
3. 공홀도 완악하게 하심도 하나님 손에
4. '오래 참으심'은 회개 대기라는 뜻이 아님
5. 바울은 하나님을 변호하려 꾸며내지 않음

로마서 9:14-18

공홀을 베푸심과 완악하게 하심이 모두 하나님 뜻임

¹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¹⁵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홀히 여길 자를 공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¹⁶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공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¹⁷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¹⁸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공홀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9:20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 없다 — 바울의 답은 경고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마태복음 15:13

아버지가 심지 않은 나무는 뽑힘 — 유기를 보여 주는 표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로마서 9:22-23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 하나님 주권 앞에서 다투지 말 것

²²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²³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로마서 9:17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심 — 완악해짐의 원인이 하나님 계획임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로마서 9:18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심 — 반대자의 부드러운 해석을 반박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첫 번째 반론:선택 교리가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는 논리. 2-3

2. 하나님의 뜻이 의의 기준임

첫 번째 반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멸망에 던지시는 것은 재판관이 아니라 폭군이 하는 일 아니냐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준이므로, “왜 그렇게 하셨나?”에 대한 마지막 대답은 “그분이 원하셨다”입니다. 그 나머지를 묻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찾는 일이고, 그런 것은 없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칼빈이 '절대 권력' 개념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법이 되는 무법한 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흠이 없고, 그 자체가 완전한 기준이며 '법 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명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도, 우리가 그 원인을 판결할 능력이 있다는 생각도 거부합니다.

1.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의 원인
2. 하나님 뜻 = 의의 최고 기준
3. '왜'의 끝은 “그분이 원하셨다”
4. 그러나 법 없는 제멋대로의 신은 아님
5.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명할 의무가 없음

시편 51:4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고 심판하실 때 순전하심 — 선을 넘으려 할 때 받는 경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3. 유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조처임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아 죄도 없는 사람을 왜 처음부터 죽음에 예정하셨나?” 칼빈은 대답보다 되물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빛을 지셨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모두 죄로 더러워졌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은 잔인해서가 아니라 공의에 맞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예정된 사람들이 본성상 이미 죽음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면 불공정하다고 불평할 근거가 없습니다. 아담의 자손은 모두 '부패한 덩어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정죄 아래 있다고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반대자들은 정죄의 진짜 원인인 자기 죄를 일부러 덮어 두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유기를 결정하신 분이라고 백 번 고백해도, 죄책은 사람의 양심에

2. 모두 죄로 더러워져 이미 정죄가 마땅함
3. 정죄는 잔인함이 아니라 공의
4. 반대자는 정죄의 원인(자기 죄)을 감춤
5. 죄책은 양심에 새겨져 핑계가 안 됨

(직접 인용 없음)

이 절은 성경 인용 없이 논증으로 답함. 앞 절의 토기장이 비유가 배경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혈문의 대상이 아님. 4-7

 4.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작정 ^

반대자들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부패하도록 미리 정해 놓고, 그 부패를 정죄의 이유로 삼으시면 피조물을 속이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칼빈은 아담의 모든 자손이 지금의 비참에 빠진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임을 인정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 뜻의 원인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토기장이 답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자들은 이 답이 궁색한 발뻘이며 힘을 과시하는 말일 뿐이라고 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라”보다 강한 이유는 없다고 답합니다. 온 세상의 심판주는 본성상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움의 이유가 사람의 잣대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 줄 뿐입니다. 칼빈은 그 예로 천사도 듭니다. 의 안에 선 천사를 '택한 천사'라 부른다면, 반역한 천사들의 원인도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속 유기 외에는 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인류의 비참도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인정)
2. 그 뜻의 원인은 하나님 안에 감춰짐
3. 토기장이 답은 발뻘이 아닌 근본 이유
4. 심판주는 본성상 의를 사랑하심
5. 천사의 선택·타락도 같은 원리

²⁰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²¹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창세기 18:25

온 땅의 심판주가 불의를 행하겠느냐 — 하나님은 본성상 의로우심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로마서 11:33

하나님의 판단은 너무 깊어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잠언 26:10

칼빈이 따른 제네바 성경의 읽기: 창조주가 어리석은 자와 범죄자에게 샅을 주심 — 형벌도 하나님 결정 안에 있음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디모데전서 5:21

'택한 천사' — 천사의 견고함도 선택에 근거함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5.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탐구의 대상이 아님



칼빈은 섭리를 비방하는 마니(마니교 창시자, 3세기 무렵 인물)와 코엘레스티우스(펠라기우스와 함께 활동한 인물로 알려짐)의 추종자들을 가정합니다. 그들에게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이성을 넘으니 이유를 캐지 말라”고 말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하나님이 멸망할 것을 미리 아신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은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이고, 왜 그렇게 뜻하셨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의 최고 규범을 가리키는 이름이므로, 그 뜻을 끌어내려 불의 문제로 다투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큰 바다'와 같아서, 좁은 지성으로 계속 파고들면 빠져 죽을 뿐입니다.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를 길게 인용합니다. 베드로는 부인했고 강도는 믿었다며, 그 깊은 앞에서 바울은 경이를 발견하고 안식을 찾았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바울의 입으로 하신 변호 외에 다른 변호가 필요 없으십니다.

1. 섭리는 이성을 넘으니 이유를 캐지 말 것
2. 하나님 뜻 = 의의 규범, 불의 논쟁 불가
3. 하나님의 판단은 '큰 바다'
4. 믿음의 무지가 무분별한 지식보다 나음
5. 바울의 변호 외에 다른 변호 불필요

로마서 9:19-23

섭리의 이유를 캐지 말라는 바울의 논리 전체

¹⁹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²⁰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²¹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²²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²³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로마서 9:20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시편 36:6

하나님의 판단은 큰 바다 같음 — 인간 측량을 넘어섬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로마서 11:33

깊도다, 헤아리지 못하고 찾지 못함 — 아우구스티누스 인용의 중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믿음이 있는 무지가 무분별한 지식보다 낫습니다.”

6. 두 번째 반론: 선택이 사람의 책임을 제거한다는 논리

두 번째 반론은 하나님을 직접 비난하기보다 죄인에게 핑계를 줍니다. “예정으로 미리 정해 놓으신 일을 왜 사람의 죄로 돌리시나? 작정과 싸울 수도 없지 않나?” 교회의 옛 저자들은 흔히 이렇게 답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신 악은 사람의 것이니, 미리 아셨어도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으셨으니 결국 그렇게 하도록 사람을 지으신 것이고, 그러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먼저 잠언 16:4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연을 지우신 게 아니라 미리 보셨을 뿐”이라는 답은 일리는 있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옛 저자들은 이 답을 주저하며 썼고, 스콜라 학자들은 반박할 수 없는 답처럼 의지했습니다.

별이는 논쟁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반론에 대한 칼빈의 본격적인 답은 8-9절에서 이어집니다.

1. 반론: 예정됐다면 사람 책임 없지 않나
2. 옛 답 “미리 보셨을 뿐”은 일리 있으나 불완전
3. 하나님은 작정하셨기에 미리 보심
4. 생명과 죽음은 예지보다 뜻의 행위(발라)
5. 본격적인 답은 8-9절에서

잠언 16:4

악인도 악한 날에 쓰이도록 지으심 — 구원과 죽음의 결정이 하나님 손에 있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7.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의 예정에 속함

반대자들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아담의 멸망을 작정하셨다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담이 자유로운 선택권으로 자기 운명을 만들어 갔고, 하나님은 그 공과(잘한 것과 잘못된 것)대로 대하기로만 정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칼빈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고귀한 피조물을 목적도 없이 지으셨겠느냐고 묻습니다. 또 아담의 후손을 보면 예정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죄책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에서 떨어진 일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인류 전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왜 첫 사람에게는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어린 자녀와 함께 영원한 죽음에 들어간 원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칼빈은 이 작정이 “무서운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그 결말을 아셨고, 작정하셨기에 아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악을 아예 허락하지 않는 것보다 악에서 선을 이루시는 편이 그분의 전능한 선하심에 맞다고 판단하셨다고 설명합니다.

2. 하나님이 목적 없이 사람을 지으셨겠나
3. 온 인류의 정죄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음
4. 작정이 “무섭다”고 칼빈도 고백함
5. 하나님은 악에서도 선을 이루심(아우구스티누스)

시편 115:3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심 — 아담만 예외일 수 없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로마서 5:12-19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매임 — 예정이 드러나는 자리

¹²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¹³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¹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¹⁵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¹⁶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¹⁷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

창세기 1:31

(아우구스티누스 인용)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게 지으심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8. 하나님의 뜻과 허용의 구별이 없음

반대자들은 '뜻'과 '허용'을 나눕니다. 악인의 멸망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일 뿐 뜻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왜 허용하시겠느냐고 되물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고귀한 피조물의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구경만 하셨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곧 필연”이라고 고백합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 마니교도, 재세레파, 에피쿠로스주의자는 예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자기 악을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예정은 하나님의 감춰진, 흠 없는 공의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그들의 멸망은 정당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적절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분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칼빈은 사람이 하나님 섭리대로 타락하지만 자기 잘못으로 타락한다고 못 박습니다. 하나님은 타락 직전에 지으신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고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러니 악은 피조 세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악한 의도로 순결한 본성을 부패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죄의 원인은 감춰진 예정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부패한 본성에서 찾아야 합니다.

1. 원치 않으시면 왜 허용하시겠나
2. “하나님의 뜻이 곧 필연”(아우구스티누스)
3. 섭리대로 타락하나 자기 잘못으로 타락
4. 창조는 “심히 좋았더라” — 악은 사람에게서
5. 정죄의 원인은 가까운 부패에서 찾을 것

창세기 1:31

지으신 모든 것이 심히 좋음 — 악이 피조 세계에서 온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친히 확인하심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정하는 대로 타락하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과실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것이다.”

9. 멸망의 상태에 빠진 원인은 사람 자신에게 있음

칼빈은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불경한 사람들의 투덜거림은 어떤 증거로도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필연이라서 피할 수 없었다며 죄를 용납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작정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분명히 공평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지극히 의로운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죄의 근원을 찾겠다며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만 들여다보고, 진짜 원인인 본성의 부패에는 눈을 감는 것은 비뚤어진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난을 막으시려고 자기가 지으신 세계가 선했다고 친히 증언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비참한 처지에 놓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순결한 창조 상태에서 떨어져 부패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1. 불경한 자의 불평은 증거로 못 막음
2. 작정은 감춰졌어도 공평함
3. 감춰진 계획만 보고 부패를 외면 말 것
4. 섭리 안에 있으나 원인은 사람에게
5. 멸망의 유일한 원인: 창조 상태에서의 타락

창세기 1:31

8절에서 인용한 말씀이 이 절의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향해 친히 증언하신다'는 말의 배경으로 보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10. 세 번째 반론: 하나님이 사람들을 편파적으로 대하신다는 논리



세 번째 반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자기 뜻으로 어떤 사람만 멸망에서 건지신다면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니, 성경이 모순이거나 선택에 공로가 고려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먼저 성경이 말하는 '외모를 보지 않으심'의 뜻을 바로잡습니다. 여기서 '외모(person)'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사람에게 붙은 겉조건입니다. 재산, 권력, 명예, 지위, 아름다움, 또는 가난, 비천함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부자냐, 자유인이냐 종이냐로 사람을 받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칼빈은 똑같은 두 사람 중 하나만 택하시는 게 말이 되느냐는 물음에 되묻습니다. “택함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을 끌어당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선하심에서 이유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은 차별이 아니라 값없는 긍휼입니다. 부르심받은 사람 중에 지혜롭고 힘 있고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육체의 교만을 낮추시려는 것입니다.

1. '외모' = 재산·지위·민족 같은 겉조건
2. 하나님은 겉조건으로 사람을 고르지 않음
3. 택함받을 만한 것이 사람 안에 없음
4. 선택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5. 선택은 차별이 아니라 값없는 긍휼

신명기 10:17

'외모'가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을 뜻함을 보여 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0:34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심(베드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막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보지

로마서 2:11

같은 원리(바울)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갈라디아서 2:6

같은 원리(바울)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갈라디아서 3:28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하지 않으심 — 민족으로 받거나 버리지 않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야고보서 2:5

부자를 편애해 판단하지 않으심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에베소서 6:9

자유인이냐 종이냐를 따지지 않으심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이라

골로새서 3:25

같은 원리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6

지혜롭고 힘 있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음 — 육체의 교만을 꺾으심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11. 예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호와 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으시니 불공정하다고 합니다. 모두 죄가 있으면 모두 벌하고, 모두 죄가 없으면 모두 놓아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주장이 하나님께 공화를 아예 베풀지 말든지, 공화를 베풀려면 심판을 통째로 거두든지 하라고 요구하는 셈이라고 지적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인이라는 데는 칼빈도 동의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공호가 그중 일부를 구원하시고, 나머지에게는 공정한 심판자로 드러나시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영광의 그릇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화로 된 것이고, 천한 그릇은 캐물을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빛 비유를 듭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한 사람의 빛은 탕감하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받아낼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자에게는 마땅한 형벌을, 부르시는 자에게는 공로와 상관없는 은혜를 주시므로 비난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도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값으심을 받겠느냐”고 말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진 분이 아니심을 밝힙니다.

1. 반론: 모두 벌하든 모두 구원하든 하라
2. 모두 똑같이 죄인임은 칼빈도 인정
3. 일부 구원 = 공화, 나머지 = 공정한 심판
4. 빛 탕감 비유: 탕감은 채권자의 권리
5.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심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로마서 11:32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두심은 긍휼을 베풀려 하심 — 원문 인용은 갈라디아서 3:22와 섞여
있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갈라디아서 3:22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둠 — 위 인용에 섞여 들어간 구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로마서 11:35

누가 주께 먼저 드렸느냐 —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으심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예정의 교리는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된 것임. 12-14

12. 네 번째 반론: 선택의 교리가 올바른 삶을 향한 열심을 무너뜨린다는 논리

네 번째 반론은 이렇습니다. 생명이나 죽음이 바뀌지 않는 작정으로 정해져 있다면,
누구나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욕심대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말이 아주 근거 없지는 않다고 인정합니다. 실제로 예정을 핑계 삼아 모든 권면과
책망을 피하는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예정을 말하는
목적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떨고 그 긍휼을 높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선택의

소용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뻔뻔한 거짓이라 합니다. 택함받지 않았다면 그런 노력이 어디서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오히려 계속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며, 그 자체로 심판을 확인시킵니다.

1. 예정을 방종 핑계로 쓰는 자가 실제로 있음
2. 예정 교리의 목적은 겸손과 경외
3. 택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 없는 삶
4. 선택은 게으름이 아닌 열심의 이유
5. 진심으로 선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은혜

에베소서 1:4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택하심 — 선택의 목표는 거룩한 삶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디모데후서 2:15

(참조)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애쓰는 삶 — 반대자 주장 속 표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로마서 9:21

천히 쓸 그릇 — 유기된 자는 계속 죄를 지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13. 다섯 번째 반론: 선택의 교리가 모든 권고들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논리 ^

다섯 번째 반론은 예정이 경건한 삶을 위한 모든 권면을 쓸모없게 만든다는

분명히 가르쳤지만, 권면에서도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오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셨지만, 이 말씀이 그분의 명령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로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고 인내하게 해야 하며, 예정을 아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게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들을 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지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감춰진 것을 모른다고 드러난 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길게 인용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걸려 넘어질까 봐 침묵하면, 받아들일 사람이 거짖에 빠집니다. 그러니 진리를 전해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듣게 해야 하며, 그 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1. 바울은 선택과 권면을 함께 가르침
2.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음
3. 하나님이 이끄심 ≠ 명령의 무효
4. 들을 귀가 왜 다른지는 감춰져 있음
5. 침묵하면 받을 사람이 손해 — 전해야 함

데살로니가전서 4:7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전서 4:4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 구체적 삶의 권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에베소서 2:10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음 — 선택과 선행이 함께 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가 오게 하셔야 옴 — 그래도 명령과 모순 아님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9

귀 있는 자는 들으라 — 권면이 열매 맺는 사람이 있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사야 6:9

들어도 깨닫지 못함 — 귀 없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로마서 11:34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 차이의 이유는 감취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마가복음 4:9

(아우구스티누스 인용)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라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15

같은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8:8

같은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사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진리를 말하되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지혜롭게 말했다고 칭찬합니다. 진리는 적절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안 믿는 건 이미 멸망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게으름과 악한 생각을 부추길 뿐입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의 정죄를 미래까지 못 박으면 그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거짓 교사로 여겨 교회에서 물려나라고 했습니다. 또 책망이 실제로 유익이 되는 것은, 책망 없이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쇠사슬로 끌고 가지 않고 속마음을 움직여 스스로 오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결론을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가 예정된 사람인지 모르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만나는 모든 이를 평안에 초대해야 합니다. 책망은 모두에게 약처럼 쓰되, 그것으로 택하신 이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1. 진리도 적절하게 말할 수 있음
2. “넌 멸망으로 정해졌다”는 저주일 뿐
3. 회심시키시는 분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4. 하나님은 강제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심
5. 누가 택자인지 모르니 모두의 구원을 바람

고린도전서 3:6-8

심고 물 주는 것과 상관없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⁶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⁷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⁸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시편 135:6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사야 45:11

장래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누가복음 10:6

평안은 평안을 받을 사람에게 머뭇 — 모두에게 전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뭇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마태복음 10:13

같은 원리(참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마땅할 것이다.”



오해와 반론



용어



선택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공로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택하신 일.

유기(遺棄)

'버려 둠'이라는 뜻.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택하지 않고 지나치셔서 죄에 대한 정죄 아래 두시는 일.

작정

하나님이 일어날 일을 미리 뜻을 정해 두신 것.

예지(豫知)

'미리 아심'. 칼빈은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아신다고 본다.

섭리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시고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이끄시는 일.

완악하게 하심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거나 베푸시지 않아 사람의 마음이 굳어진 채 남는 일.

허용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을 뿐'이라는 설명. 칼빈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단순한 허용'을 거부한다.

절대 권력(라틴어 **potentia absoluta**)

중세 스콜라 신학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던 말. 칼빈은 법을 벗어난 제멋대로의 신을 떠올리게 한다면 거부한다.

외모를 보심

재산, 지위, 민족 같은 겉조건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다고 말한다.

💬 청년의 삶으로



- 유기는 선택과 함께 가며, 하나님이 지나치시는 이유는 그분의 뜻 외에 없다.
- 하나님의 뜻은 의의 최고 기준이지만, 법 없는 변덕이 아니라 흠 없는 '법 중의 법'이다.
-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지만, 사람은 자기 잘못으로 타락하며 정죄의 원인은 사람의 부패에 있다.
- 선택은 차별이 아니라 값없는 긍휼이고, 버려 두심은 마땅한 심판이다.
- 예정은 방종이나 침묵의 이유가 아니라 거룩한 삶과 겸손한 전도의 이유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칼빈 『기독교강요』 (생명의말씀사)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https://www.youtube.com/@빛다방)